

초록 희망, 숲과 함께 하나 되는 우리

특수학급연합 나눔의 숲 체험 통합캠프

경기도포천교육청(교육장 오정순)은 6월19일부터 2박3일간 강원도 횡성 숲체험원에서 '초록 희망, 숲과 함께 하나 되는 우리'라는 주제로 관내 특수학급과 교육청부설 영재교육원의 통합캠프를 개최했다.

포천 관내 초·중·고 특수교육대상 학생 116명과 지도교사, 특수교육보조원 및 포천교육청부설 영재교육원 학생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등 170여명이 참가한 이번 캠프는 경기도포천교육청이 주관하고 사단법인 녹색재단이 후원하는 무료캠프로 운영되었으며 장애극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특수교육대상 학생 및 학부모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다.

특히 산 정상까지 설치된 휠체어 데크로드를 이용한 중증 장애

아의 청태산 정상 체험은 평생의 잊지 못할 추억과 함께 장애 극복의 큰 자신감을 심어주었으며 지도교사와 숲 해설가, 자원봉사자에게 봉사의 기쁨과 함께 장애 인식의 새 장을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 밖에 모든 학생들이 자유롭게 만끽했던 숲속운동회와 즐거운 레크리에이션, 숲속 트레킹, 자연물을 이용한 T-셔츠 만들기, 액자 만들기, 숲속 야영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시종일관 참가 학생들의 밝은 웃음 속에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관내초등학교 배운희 교사는 "학생들이 장애를 지녔다는 사실마저 잊을 정도로 활발하게 참여하고 즐거워하여 지도교사로서 큰 보람과 만족을 느꼈으며 앞으로 교실 수업에서도 장애를 최소화할 수



경기도포천교육청은 6월19일부터 2박3일간 강원도 횡성 숲체험원에서 '초록 희망, 숲과 함께 하나 되는 우리'라는 주제로 관내 특수학급과 교육청부설 영재교육원의 통합캠프를 개최했다.

있는 활동중심의 수업으로 학생들의 자신감과 자립심을 기르겠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가유기고

이 지연 학생기자 · 포천초 5년

선생님께서 17~18일에 포천초등학교 5학년 야영을 실시한다는 통신문을 나누어 주셨다.

야영? 야영이 뭐야? 국어사전을 찾아보니 휴양이나 훈련을 목적으로 야외에 천막을 치고 노는 생활이라고 했다.

선생님께서 야영하면 우리가 직접 밥을 지어 먹어야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걱정이 됐다. 그래도 야영 가기 며칠 전에 선생님과 함께 교실에서 요리 실습을 해 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밥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있었다. 그렇지만 얼마 안가 밥도 내 손으로 해 먹어야 하고 잠도 폭신한 침대가 아니고 텐트에서 잔다고 하니 야영 가는 것이 두려웠다.

야영 전 날 밤, 시무룩한 나의 표정이 격정되지는지"엄마가 내일 야영장으로 지인이 보러 갈까?"하셨다. 엄마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는 좋았지만 그럼 본래 야영의 목적이 없어 질 것만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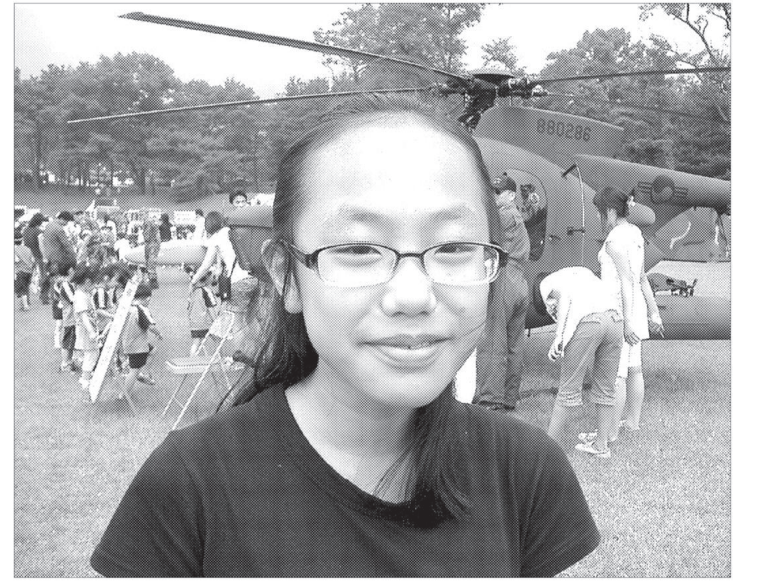
학생 포천야영장에서는 직접 취사함으로써 부모에 대한 효의 정신을 높이고, 실천 위주의 인성 교육과 건강하고 진취적인 학생으로 자라게 도와주며 행하면서 배우는 체험학습장이라고 했는데, 부모님께서 오셔서 도와주신다면 나는 고생만 하고 얻는 것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포천야영장을 찾아 부모님께 보여드리며, 이곳에서 잘 지내고 올 것이니 걱정 마시라고 안심시켜 드렸다.

17일 아침, 드디어 야영 날이 밝았다. 운동장에 들어 온 여덟대의 버스에 반으로 나누어 타고 야영장으로 출발했다.

입소식을 하며 우리의 야영이 시작됐다. 집에서 가져간 짐을 밥을 먹고 야영장에서 지도 해주시는 교관 선생님의 명령에 따라 훈련에 들어갔다. 극기 훈련, 등산 등 체력단련을 했는데 인터넷에서 훈련 기구들을 볼 때는 무서울까봐 걱정했는데, 직접 체험 해 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별로 무겁거나 힘들지 않고 재미있었다. 특히 쇠줄타기라고 되어 있는 흔들다리를 건널 때는 내가 먼저 재빨리 건너

포천초등학교 5학년 '야영'



가 다른 친구들이 건널 동안 마구 흔들렸더니, 친구들은 두려움에 떨며 화를 냈다. 우하하하하...

훈련을 마치고 저녁식사를 준비하는 시간. 속담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고 했던가? 함께 밥을 먹는 조, 그러니까 우리 식구는 모두 여섯 명이다. 여섯 식구가 둘러앉아 밥을 하는데

"물이 많다. 적다." 의견이 분분하다가 다수결이 따라서 물을 덜고 밥을 했더니, 밥이 익은 것이라서 안 익은 것인양 딱딱했다. 체력단련을 하고 난 뒤라 배가 고프는데도 밥은 맛이 없고 집에 차려진 식탁이 그리웠다.

저녁식사를 마치고 레크리에이션 시간이 되었다. 이 시간을 위하여 나는 몇몇 친구들과 열다나 노력했다. 잠자다가도 "L.O.V.E 사랑 싸인 안 할래~"라고 흥얼거릴 정도였다. 레크리에이션 장기자랑에서 우리는 여덟 반 중 2등을 했다. 상품은 몽셀, 열심히 연습한 결과 우리 반 친구들 모두와 함께, 상으로 받은 몽셀을 하나씩 먹었다.

그리고 캠프 회의어 시간, 모닥불이 타오르고 반 별로 그리고 남녀별로 동그랗게 동그랗게 원을 그리며 앉았다. 디스코 릴레이도 하고 선생님께서 제시하시는 미션을 수행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캠프회이어가 끝 날 때쯤, 원 안에는 촛불이 하나씩 타 오르고... 선생님의 말씀이 시작되었다.

"촛불은 자기 자신의 몸을 태워서 세상을 밝혀주지요? 이 세

상에는 촛불과 같은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부모님이십니다."

여기저기에서 훌쩍거리는 소리가 났다. 모두가 한 마음이라. 고마운신 부모님인데, 그동안 말 안 들어서 죄송한 마음 그래서 더욱 보고 싶은 마음.

계획대로라면 우리는 캠프회이어를 마치고 전체 관측소에서 별을 관찰해야 했는데, 날이 잔뜩 흐려서 별이 보이지 않았다. 하늘을 힐끔 힐끔 보다가 아쉬웠지만 그냥 잠자리에 들어야 했다.

잠자기 전, 내 손안에 들려 있던 펜 하나, 친구들이 모두 잠들면 친구 얼굴에 그림을 그릴 펜이다.

"애들이 빨리 잠들어라. 빨리 잠들어라..." 그러다가 내가 먼저 잠들고 말았다. 다음날 아침 모든 친구들의 얼굴이 깨끗했던 것은 말 할 필요도 없다. 잠자리에서 일어나 사발 면으로 간단한 아침을 먹고 배낭을 정리했다.

1박 2일의 짧은 야영이었지만 부모님의 감사함을 느끼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고, 우리라는 것의 소중함이 가슴에 와 닿는 시간이었다.

우리 반, 우리 친구, 우리 선생님...우리 반 친구들, 그리고 담임선생님과 특별하고 즐거운 시간은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이다.

교장선생님을 비롯하여 많은 선생님들께서 야영까지 오셔서 보여 주시는 관심과 사랑이 감사했다. 야영 하루만에 내 마음이 훌쩍 자란 느낌이다.

화제의 인물 포천중학교 행정실장 오용암

학교교육환경 개선 남다른 노력 돋보여

상수도 조례 개정으로 연간 6천여만원 절감 효과

학교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학교 교육환경의 개선이 매우 중요하다. 포천시 학교교육 환경개선을 위해 남다른 노력을 한 결과 큰 성과를 거두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현재 포천중학교 오용암 행정실장이다.

오 실장은 2002년7월1일부터 2005년4월25일까지 포천일고등학교에 근무하면서 학생들의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특별예산을 확보해 교실에 에어컨을 설치하고(7천300만원), 교실과 급식소 연결통로 설치(2천500만원) 및 실습기자재 확충과 실습농장시설 개보수(7천만원), 실습실 실습기자재 구입(3억8천400만원), 전산실 바닥 보수(1천300만원), 도서관 증축(2억5천만원), 농장관리사 증축(13억600만원) 등 18억9천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집행했다.

포천일고에 자동판매기 3대를 설치하여 연간 2천400만원의 수익금으로 학생들의 학예활동비로 집행했으며 급식시 잔반 줄이기 운동을 벌여 1일 150kg의 잔반을 40kg으로 줄여 연 3천만원 상당의 예산 절감효과를 거두기도 했다.

2002년도에 포천일고 테니스장 및 운동장 정비시 작업으로 자체 정비 및 인력을 동원해 4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학교공원화 사업으로 레미콘 회사에서 콘크리트 강도 측정을 위한 인토크링을 얻어 무공해토단을 조성해



포천중학교 오용암 행정실장이 폐휴관을 활용한 쓰레기통을 이용하고 있다.

300만원 상당의 예산을 절감하기도 했다.

오 실장은 2005년4월26일부터 2006년1월30일까지 영중중학교에 근무할 당시에는 특별예산 3억2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민간 협조로 35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기도 했다. 영중중학교 특별예산으로 교직원 공동주택 보수(1억8천274만원), 도서관 리모델링(3천만원), 운동장(배수로 스탠드) 보수(1억1천851만천원) 등으로 집행했다.

특히 수해복구시 자매부대 및 이웃주민, 인근학교의 도움으로 약 35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기도 했다. 오 실장은 이같은 실적으로 2007년6월30

절감하게 되었다.

2008년1월21일 포천중학교 행정실장으로 부임해서 6억1천800만원으로 급식소 증축을 완료하고 ▶시스템에어컨(4억3천만원) ▶장애우 승강기설치(1억3천만원) ▶화장실대수선(2억1천만원) ▶배수로공사(7천5백만원) 등의 예산을 확보 또는 집행하고 있다.

오 실장은 특히 예산절감을 위한 폐품 재활용에도 앞장서고 있다. 폐휴관을 활용한 쓰레기통 제작(소형), 폐기된 책상을 활용한 쓰레기봉투 지지대를 제작(대형)하여 활용하고 있다.

학생들의 체력향상을 위해서 운동부(축구·역도)가 쾌적하고 안전하게 훈련할 수 있도록 지원 행정을 펼치고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마음놓고 뛰놀며 운동할 수 있도록 행정실 직원, 조기축구위원과 수시로 잡초제거 및 운동장 고르기 작업, 배수로 청소 등을 시행하고 있다.

오 실장은 학생들의 건강한 급식을 위하여 천연조미료를 사용케 하고 날 음식보다 익힌 음식으로 요리토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우기가 시작되는 여름에 피로가 겹쳐 학생을 위한 알맞은 식단을 구성하고 있다.

또한 오 실장은 예산을 비롯한 행정을 교직원 및 일반에 공개하여 열린 행정 구현에 앞장서고 있어 타의 모범이 되고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BEST 보육프로그램 ⑥ 세대간 통합 위한 '조부모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

이야기 할머니 선생님 인기 최고

"몇 천 번을 불러도 또 부르고 싶은 말 내가 제일 좋아하는 하는 부모님, 내 조부모님..." 몇 해전 원에서 '조부모 초청의 날'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다. 마지막 순서에서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서 아이들이 부른 노래다. 마음이 뭉클해서, 나도 모르게 돌아가신 할머니를 가슴 깊이 뜨거워졌다.

사회의 변화로 인해, 가족구조에도 많은 변화가 있어 대가족보다는 핵가족, 소가족의 형태로 변화가 보니, 할아버지, 할머니와의 정겨운 시간을 보내기가 어려워진다. 예전 할머니가 들려주셨던 옛날 이야기, '언제나 내 곁이' 하며 내 편이었던 할머니... 요즘 아이들은 할머니와 할아버지와 어떤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일까?

조부모 초청의 날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에게 조부모와 함께 지내는 시간을 마련함으로써 세대간 이해와 공감을 통해 효 사상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우선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첫 주에 계획을 하고, 가정예안내문을 보내다. 참가 신청서를 3주 전에 배우하여 참석여부를 확인한다. 물론 친할아버지, 할머니 뿐 아니라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를 같이 초청을 한다. 멀리 계시

는 조부모님들께서 많은 참가신청서를 보내왔다.

프로그램은 아이들의 재능보여주기(노래, 율동),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하는 민속놀이(제기차기, 후호놀이, 병신술래잡기, 비석치기) 그리고 인절미 만들기, 두부 만들기, 할머니가 들려주시는 옛날 이야기 듣기, 붓싸움, 등으로 이루어지며, 마지막에 모여서 안마 해드리기, 노래 불러 드리기로 프로그램은 마무리 된다.

조금씩 어색함에서 친근함으로 프로그램에 임해주는 조부모님들의 모습에서 내리사랑을 느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준 시간이었다고 기억이 된다.

같은 맥락으로 관인어린이집에서는 세대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작년년부터 현재까지 일주일 한 번씩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간을 진행하고 있다. 할머니께서 원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시어 내 시간을 진행하고 있다. 할머니께서 원에 오시면 할머니를 통해 자기 가치감을 긍정적으로 가지지 않을까?

나즈막한 목소리로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를 통해 우리 민족의 정서인 은근과 끈기, 천천히 가는 지혜를 살아가면서 지켜야 내 시간을 보내는에 따라 다르다. 1살도 세대 차이를 느끼는 현 사회에서 세대를 달리하는 조부모와 손자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은 통해 아이들은 경로사상과 효를 배우지 않을까? 무조건 내 편을 해주는 할머니를 통해 자기 가치감을 긍정적으로 가지지 않을까?

적히 보육과정 운영에 있어 시간을 드리기가 다소 부담스럽다 느껴졌는데 아이들은 어느새 할머니를 통해 인성을 키워가고 있었던 것이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엄마, 아빠도 아이들은 좋아하지만, 조부모들을 아이들은 더 좋아한다.

물론, 조부모와 아이들이 어떤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 다르다. 1살도 세대 차이를 느끼는 현 사회에서 세대를 달리하는 조부모와 손자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은 통해 아이들은 경로사상과 효를 배우지 않을까? 무조건 내 편을 해주는 할머니를 통해 자기 가치감을 긍정적으로 가지지 않을까?

나즈막한 목소리로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를 통해 우리 민족의 정서인 은근과 끈기, 천천히 가는 지혜를 살아가면서 지켜야 내 시간을 보내는에 따라 다르다. 1살도 세대 차이를 느끼는 현 사회에서 세대를 달리하는 조부모와 손자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은 통해 아이들은 경로사상과 효를 배우지 않을까? 무조건 내 편을 해주는 할머니를 통해 자기 가치감을 긍정적으로 가지지 않을까?



김경선 관인어린이집 원장 kksn64@narmal.net

함께 공부해요

음식지절(飲食之節) ⑥

少儀에 日侍食於君子則先飯而後已 母放飯하며 母流歎하며 小飯而亟之하며 數數하여 母爲口容이니라.

소외에 말하기를 "군자를 모시고 음식을 먹을때에는 군자보다 먼저 밥을 먹고 군자보다 뒤에 그친다. 밥숟가락을 크게 뜨지 말며, 국물을 물 마시듯 마시지 말아야 한다. 적게 먹고 빨리 먹는다. 여러 번 씹으나 입으로 시용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 글에서는 어른을 모시고 음식을 먹을 때 주의할 점들을 논했다. 옛날에는 어른과 함께 음식을 먹을 때에는 먼저 음식을 맛보는 것이 예의로 되어

있으니 어른보다 먼저 먹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어른보다 먼저 먹는 것은 실례가 된다. 다만 어른보다 뒤에 마치는 것은 어른에게 음식을 관한다는 뜻에서 좋다고 보았다. 그리고 입을 벌려서 크게 씹는 것도 실례가 된다."



양주승 본지 지문위원



윤동성의 국제비즈니스 미국영어



- 수와 셀
- 16. <보기> : (9) 제품 사양 (1)
 - * 이 제품은 아주 무거워 보이네요. 디스인 룩스라이 파이베디바즈너?
<This one looks like quite heavy, doesn't it?>
 - * 한 통이 27 킬로그램입니다. 이스트웨니세븐 케이지퍼바켓 (It's 27kg per bucket.)
 - * 뿌리는 건가요, 바르는 건가요? 이잇스프레이 울트랄라임?
<Is it spray or trvel type?>
 - * 두 가지 다 가능 합니다. 보스에스퍼서블(Both as possible.)
 - * 얼마나 쓸 수 있나요? 왓리스더 커버웨이지? <What is the coverage?>
 - * 뿌리는 경우 10-12 평방미터 가능 합니다. 인케이슈스프레이, 커버라블뷰 텐투트웰브스퀘어미터를
<In case of spraying, coverable for 10-12 square meters.>

문의 : 윤 종성 (017-723-4977)colyoon@nate.com